

북구, 다북다북 책축제 개최...책과 시의 만남

운암도서관·운암제3근린공원서 23일부터 이틀간 개최

작가 강연·공연·AI 체험 등 전 세대 참여 프로그램 운영



제6회 다북다북 책축제 행사 포스터

/광주 북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구청장 신수정)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운암도서관과 운암제3근린공원 일대에서 '제6회 다북다북 책 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북다북 책 축제'는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주민참여형 문화 행사이다.

'꿈꾸는 도서관, 함께하는 AI'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책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미래 도서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축제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하루였던 축제 기간을 이틀로 확대하고 날짜별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세부 행사는 강연·공연·체험·전시·놀이 등 5개 분야로 구성했다. 먼저 23일에는 운암도서관에서는 'WHY? 시리즈'의 조영선 작가와 '초등 매일 공부의 힘'의 이은경 작가가 독자와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24일에는 운암제3근린공원에서 마술 공연을 시작으로 버블쇼, 재난 안전 인형극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이틀날 열릴 개막식에서는 독서 진흥 유공자 표창과 함께 북구의 지평을 향상화한 퍼즐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독서 문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작은 도서관과 독서단체가 참여하는 체험 부스와 팝업북

전시, 에어바운스, 블록 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됐으며 공원 산책로의 QR코드를 따라 하나의 동화를 완성하는 '동화 산책' 프로그램과 독서 명언·인기 대출 도서 전시 등 이색적인 독서 체험도 운영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AI 기반 도서관 서비스부터 미래 도서관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통해 변화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소개할 계획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축제가 많은 주민들이 책과 새로운 기술을 함께 경험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책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남구 관내 생활문화센터, '문화와 이웃' 잇는다

효천·사직골 등 6곳서 프로그램 57개 운영

1~9월 9,990명 참여...문화공동체 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구청장 김병내)에서 운영하는 관내 생활문화센터가 주민들의 문화 생활과 이웃간 소통을 연결하는 이음새 역할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배우고 즐기면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는 봉선동 남구 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해 효천 생활문화센터, 사직골 생활문화센터, 봉선2동 생활문화센터, 방림 생활문화센터, 주월 생활문화센터까지 6곳이다. 현재 생활문화센터 6

곳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57개에 달한다.

라인댄스부터 유아·초등 발레, 색소폰 교실, 노래교실, 그림책 창의 놀이, 요가, 필라테스, 장구, 민요 판소리, 우쿨렐레, 생활영어, 합창 교실, 파크골프, 모델 워킹, 손가락 난타, 한국무용, 손 글씨, 국궁 활쏘기 등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생활문화센터 6곳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민의 수는 무려 9,99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문화센터가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뒷받침하는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가 문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소통과 교류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남구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12개 프로그램에 매월 400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효천 생활문화센터도 매월 230명 정도의 주민들이 17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9개월 동안 1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생활문화센터에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이웃과 교류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누리고,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지역 공동체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문화센터는 전문적인 문화시설을 갖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취미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연령과 관심사가 다른 주민들이 같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발레와 그림책 창의 놀이 등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성인과 어르신들은 운동과 음악,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세대별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남구는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효천생활문화센터 아랑장고 성과공유회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무안군

문화관광 콘텐츠도시

무안으로 떠나는 여행...

대자연과의 축제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무안으로 여행을 즐겨요~~



나들이하기 좋은 곳...
무안으로 떠나요~~



검은비단 갯벌 인류와 공존하다
전국 최대규모 무안생태갯벌센터
박지모양 등대 보러오세요~
일출, 일몰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리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호담 항공우주전시관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茶聖)
초의선사 탄생유적지

하늘과 땅, 바다 모두 볼게 물들다
낙조가 아름다운 톱머리 해수욕장
바다와 바람에 온 몸을 맡긴다
윈드서핑의 최적지 홀통유원지
백련, 진흙 속에서 순백의 꽃을 피우다
동양 최대 백련 자생지 회산백련지

사계절 관광명소

무안군